

[ 사회 ]

■ 광주 노래방 강도, 숨겨진 이야기들

비상 경계망을 뚫고 노래방 강도 사건이 4일 또 발생하자 경찰이 맥 팔린 모습이다.

경찰은 강도가 지난주 금요일~일요일까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600여 명을 광주 시내 800여 곳의 노래방 주변에 잠복시켰다.

주말을 전후 24시간 대기체제에 들어간 것은 범인의 행적 및 심리를 분석한 프로파일링(Profiling)에 따른 조치.

범행장소는 ▲북구 6곳 ▲동구 2곳 ▲서구 1곳 ▲광산구 1곳. 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남구 쪽 노래방을 택할 것이라는 경찰의 예측은 여지없이 비나갔다.

범행장소는 ▲북구 6곳 ▲동구 2곳 ▲서구 1곳 ▲광산구 1곳. 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남구 쪽 노래방을 택할 것이라는 경찰의 예측은 여지없이 비나갔다.

범행장소는 ▲북구 6곳 ▲동구 2곳 ▲서구 1곳 ▲광산구 1곳. 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남구 쪽 노래방을 택할 것이라는 경찰의 예측은 여지없이 비나갔다.

긴장한 남자들도 반항 못하고 무릎 꿇어 범행 후 되돌아와 피해자 놀려 대기도 “왜 이러나” 꾸짖자 “상관 마십시오” 응수

하루 평균 3만8,000원꼴 쓰고 8~9일만에 다시 범행

취한 DNA 분석, 현상금 500만원을 내건 공개 수배, 검거자 1계급 특진도 아직 ‘약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고 귀띔한다.

“영리한 A 노래방 여주인은 강도가 들어와 위협하자 일부러 그 일대 ‘조쪽’처럼 생긴 긴장한 남자 2명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속으로 ‘너 이제 딱 걸렸다’라는 거였죠. 한데 흥기를 들이대니 무릎을 딱 꿇더라는 겁니다. 뽕 안에 있던 옷걸이만 갖고 반항했어도 잡았을 텐데... 정말 아쉬웠던 대목이죠.”

B 노래방에서 돈을 빼앗긴 남자 중 한 명은 피해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대기 중 사

라졌다. 어떤 죄목인 줄은 모르지만, 수배 중 이라서 달아났을 거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C 노래방에 든 강도는 손님 7명을 결박, 1시간 동안 머물다 금품을 빼앗아 밖으로 나갔다. 그러곤 30여 분 뒤 다시 들어와 “내가 간 줄 알았지?”라며 놀려댔다.

D 노래방에서는 남자 주인이 “나도 젊었을 때 운동했던 사람이야. 너 왜 이래?”라고 꾸짖자 되레 “왜 나에게 뭐라고 (지칭구)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인상착의가 엇갈린다는

■ 광주 노래방 강도 발생 상황

Table with 3 columns: 일시-장소, 피해액. Lists various locations and amounts of loss.

Weather forecast for Jeonju (4월 6일) and a map of Jeonju region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districts.

10대에 ‘타미플루’ 사용 금지

미성년자(10-19세)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 ‘타미플루’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미플루를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 “대학 시간강사들도 근로자”

55개 사립대 산재보험료 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해임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간강사들은 임금 목적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영화 보고 화분 받고. 식목일인 5일 광주 엔터테인먼트를 찾은 영화 팬들이 꽃 꽃이 심어진 화분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정년 눈앞... 직무 유기 감형 사유 안된다”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수차례 했을 경우 정년퇴직을 눈 앞했다고 해도 감형을 해 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5일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 민모(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럽 감기약 70% 유해성 타르색소 검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10개 중 7개에서 약효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최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분으로 단백질과 결합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약효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보존제를 사

ALU-TESTOL advertisement for English certification courses.

동아경찰영어 advertisement for TOEIC preparation.

Sens-Mo advertisement for hair treatment services.

South Bay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s.

동아외국어학원 advertisement for TOEIC classes.